

미 인디애나 주립대 전속 피아노 조율사 광주출신 한 원 철씨

“흔으로 피아노 음 살리듯 연주자 흔에 맞게 조율”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음악학과는 교수만 170명에 이르는 유명 대학이다. 그중 피아노 학과 교수는 16명, 학교 소유 피아노만도 600대(그랜드피아노 450대)에 달한다. 학교 측은 전속 조율사 5명에게 피아노 조율을 맡기고 있다.

그중 광주 출신 조율사 한원철(58)씨는 예민하고 요구가 많은 교수들이 사용하는 피아노를 조율하는 최고의 베테랑이다.

지난 1998년부터 10년째 인디애나대 조율사로 재직중인 한씨가 최근 광주를 찾았다. 인디애나대 박사 출신인 신수경(전남대) 교수의 제안으로 한씨는 오는 25일 전남대(오전 10시)와 순천대(오후 3시)에서 피아노 조율을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아버지도 광주에서 조율 활동

전남대 전기공학과 출신인 한씨가 피아노 조율사로 들어서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커다. 미국에 거주중인 부친 한덕순(87)씨는 광주 지역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다.

해방 전부터 오르간을 제작해 온 한씨는 광주에서는 처음으로 피아노를 판매하는 ‘광주피아노사’를 운영했고, 조율사로도 활동했다.

부친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화가 있다. 1970년대 초 독일 연주자 막스 슈타인은 광주에서 연주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지역 공연장에는 그런 피아노가 없었다. 전남일보(현 광주일보 전신) 강당에 있던 오래된 암마하 그랜드 피아노가 유일 했지만 피아노 상태는 엄청이었다.

의뢰를 받은 부친은 피아노를 완벽하게 조율했고, 성공적인 연주회를 마친 막스 슈타인은 ‘진정한 마이스터’라며 독일로 함께 가자고 청하기도 했다.

은대학 졸업 후 처음 조율을 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 반대가 심했어요. 엔지니어가 되길 바라셨거든요. 아버지에게 배우다 이론 공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당시 미국에 가 있던 여동생에게 관련 서적을 공수받아 공부를 했죠. 일본 야마와와 가와이 오스트리아 베젠토르 등 피아노 제작 회사에서 실무를 익혔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쉬웠죠. 외국 가서 배워 오니 더 어렵더라고요.”



인디애나 주립대 음악학과 전속 조율사인 한원철씨가 17일 광주 드맹아트홀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kwangju.co.kr

1991년 광주문화회관이 개관하면서 문예회관 지정 조율사로 활동하던 한씨가 인디애나대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우연이었다.

25일 전남대·순천대서 특강

“인디애나대에 입학한 아이들 때문에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워낙 음악에 유익한데다, 전속 조율사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경갔다 한번 조율을 해보라는 말을 들었죠. 슈퍼바이저가 한참을 보더니 같이 일하면 좋겠다고 해 파트 타입으로 일하다 곧바로 정식 직원이 됐죠. 한 1년 정도 머물다 돌아오려했는데 지금까지 머물게 됐네요.”

한씨는 음대 석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아노 조율에 대한 강의도 맡고 있다.

“조율사는 피아노에 훈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연주자가 모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연주 곡목과 연주자의 취향에 맞게 조율해주는 게 중요해요. 연주자 본인이 소리에 감동해야하고, 피아노 역시 그 감동을 받아서 전달하려면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야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외국 연주자가 조율이 마음에 들지 않아 광주 연주자를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참 안타까웠죠.”

한씨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피아노 구조나 조율 등에 대해 아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가장에서도 역시 피아노 조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피아노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조율이 안맞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정확한 소리를 들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한씨는 이번 특강에 음악인들은 물론 피아노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30-3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버지도 광주에서 조율 활동

전남대 전기공학과 출신인 한씨가 피아노 조율사로 들어서게 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커다. 미국에 거주중인 부친 한덕순(87)씨는 광주 지역 음악인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사다.

광주문진위 지역 협력형 사업 4팀 선정

최대 1억 지원…지역 문화 활성화 기대

지역 공연 단체의 관심이 집중된 2009 지역 협력형 사업 공모 결과가 밝혀졌다.

지역 협력형 사업(기획 지원 사업,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사업)은 지역 공연예술 단체 지원 사업으로는 드물게 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지역 문화계의 이목을 집중시켜왔다.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를 갖고 기획 지원 사업 지원팀으로 극단 ‘진달래 피네’의 ‘동연-다시 사랑한 후에’와 김미숙 무용단의 ‘빛의 광주 춤으로 꽂피다’를 선정했다.

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대상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건탁)는 1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를 갖고 기획 지원 사업 지원팀으로 극단 ‘진달래 피네’의 ‘동연-다시 사랑한 후에’와 김미숙 무용단의 ‘빛의 광주 춤으로 꽂피다’를 선정했다.

또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 대상은

- 진달래 피네
- 서영 무용단
- 김미숙 무용단
- 강숙자 오페라단

예술단체 집중육성사업에는 전통예술(3팀) 음악(4팀) 연극(4팀) 무용(5팀) 분야에서 모두 16개팀이 응모했으며 기획 지원 사업에는 5개 단체가 응모했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공연예술단체 집중육성 사업 대상팀으로 목포 극단 ‘갯뜰’, 나주 극단 ‘예인방’, 여수 장미영무용단을 선정한 바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故 이청준 문학세계 재조명

순천대와 고향 장흥서

추모 1주기 학술대회



2부 문학술 세미나에서 임환모 전 남대 교수, 김한식 상명대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교수 등 이청준 문학 연구자들이 이청준 소설의 지형도와 서술전략 등을 들려하고 발표하고 토론이 이어진다.

고인이 생전 서적교수를 지냈던 순천대와 고인의 고향 장흥군은 22~23일 장흥군문화예술회관에서 추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2일 고인의 문학적 삶을 기록한 영상과 김영남 시인의 주제로 시작해 문학평론가 김병익, 소설가 한승원, 화가 김선우, 김길수 순천대 교수 등 생전 고인을 알고 지낸 각계 인사들이 ‘이청준 삶과 문학’에 대해 발표한다.

23일에는 고인의 생가와 장흥군 일대 영화 활영지를 돌아보는 문학 기행도 마련된다. 문의 061-860-0024. /김대성기자 bigkim@kykim@

제 54회 호남예술제 관악 입상자

〈심사위원〉

신상호(전북대 교수)

한기세(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수석)

황성구(전남대 교수)

유영대(충남대 교수)

김동수(성신여자대 교수)

▲ 은상

이재원(주월3)

▲ 동상

한승아(대성여자3)

김이슬(알레시오여자3)

◇ 트럼펫(중등부)

▲ 금상

양지원(광주동성여자3)

◇ 트럼펫(중등부)

해당사항 없음

◇ 호른(중등부)

▲ 동상

임경은(광주경신2)

◇ 세스폰(중등부)

▲ 은상

이명아(송정3)

◇ 플루트(고등부)

▲ 최고상

박주연(설레시오3)

▲ 은상

김현지(광주송원2)

▲ 동상

국건호(광주동운4)

▲ 동상

박은서(광주송원4)

▲ 은상

김유희(광주송원3)

◇ 플루트(초등 5,6학년)

▲ 금상

박수민(풍암6)

▲ 은상

정세운(광주불로2)

◇ 플루트(초등 3,4학년)

▲ 금상

박희원(전주예술1)

▲ 동상

이한별(전남예술3)

▲ 은상

김유경(광주예술4)

▲ 동상

김민정(광주예술5)

▲ 최고상

박혜원(광주피아여자2)

◇ 트럼펫(고등부)

▲ 은상

오정빈(광주예술2)

▲ 동상

김민찬(풍암1)

◇ 트럼펫(중등부)

▲ 최고상

박수현(광주피아여자2)

▲ 은상

김윤정(광주예술3)

◇ 트럼펫(고등부)

▲ 금상

박지윤(광주예술3)

▲ 동상

김현정(광주중앙2)

▲ 최고상

최경민(금당2)

◇ 클리어넷(중등부)

▲ 금상

김수환(광주중앙2)

▲ 동상

최경민(금당2)

◇ 오보에(고등부)

▲ 은상

최진실(광주예술3)

▲ 동상

박정하(광주예술3)

▲ 동상

강대현(여수공업2)

◇ 클리어넷(고등부)

▲ 은상

김윤정(광주예술3)

◇ 트럼펫(중등부)

▲ 금상

박지윤(설레시오3)

▲ 동상

김현정(광주예술3)

◇ 세스폰(중등부)

▲ 은상

이현민(조선대학교여자2)

▲ 동상

김수민(광주수피아